

# 신라·당 전쟁

## '약소국' 신라(新羅), '강대국' 당(唐)으로부터 한반도를 지켜내다

670 ~ 676



매소성 전투  
/ 전쟁기념관 /

### 1 개요

신라·당 전쟁은 백제(百濟)와 고구려(高句麗)가 멸망한 이후, 신라(新羅)와 당(唐) 사이에 영토 문제가 원인이 되어 발발한 전쟁이다. 신라는 오골성(烏骨城) 전투를 통해 전쟁의 초기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백제의 옛 땅을 차지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이후 당의 적극적인 반격에 의해 석문(石門) 전투와 칠중성(七重城)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그러나 신라는 나당전쟁의 전환점이 되는 매소성(買肖城) 전투에서 승리하며 전세를 유리하게 가져왔다. 676년(문무왕 16) 11월에 이르러 기벌포(岐伐浦) 전투에서 신라가 승리하며 나당전쟁은 종결되었다.

### 2 당(唐), 신라와의 약속을 어기다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에 대항하기 위해 648년(진덕왕 2) 당과 군사동맹을 체결하였다. 이후 신라와 당은 연합하여 660년(태종무열왕 7)에 백제를 멸망시켰으며, [관련사료](#) 668년(문무왕 8년)에는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관련사료](#) 이로써 삼국 가운데 유일한 승자가 된 신라는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랐지만, 당이 고구려·백제를 이어 신라마저 집어 삼키려는 야욕을 보이면서 상황은 급변하였다.

신라와 당이 처음 군사동맹을 체결할 당시, 당태종(唐太宗)은 고구려와 백제를 정벌하고 나면, 평양(平壤) 이남의 백제 땅은 모두 신라에 주기로 약속을 하였다. [관련사료](#) 그러나 당은 백제·고구려 멸망 이후 약속과 달리 고구려 땅에는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를, [관련사료](#) 백제 땅에는 웅진도독부(熊津都督府)를 설치하여, [관련사료](#) 고구려·백제 땅을 직접 통치하고자 하였다. 또한 당은 문무왕(文武王)을 계림주대도독(雞林州大都督)으로 삼고, [관련사료](#) 의자왕(義慈王)의 아들인 부여웅(扶餘隆)을 웅진도독(熊津都督)으로 임명하여, [관련사료](#) 취리산회맹(就利山會盟)을 주도함으로써 [관련사료](#) 신라와의 약속을 어기고 한반도에 대한 지배 의도를 드러내었다. 이러한 신라와 당 사이의 영토문제는 나당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

나아가 나당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원인 중에는 영토 문제뿐만 아니라 나당연합군이 고구려와 백제를 정벌하는 과정에서 신라의 군령권이 당에 의해 침해당하면서 신라왕과 신라 군부의 거센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당시 신라에 속지(屬地)가 한 수 있는 비연(比延)을 두리(都里)인